

우리말 지금

우리말 보고서

재미있는 우리말

우리말 편지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2013

0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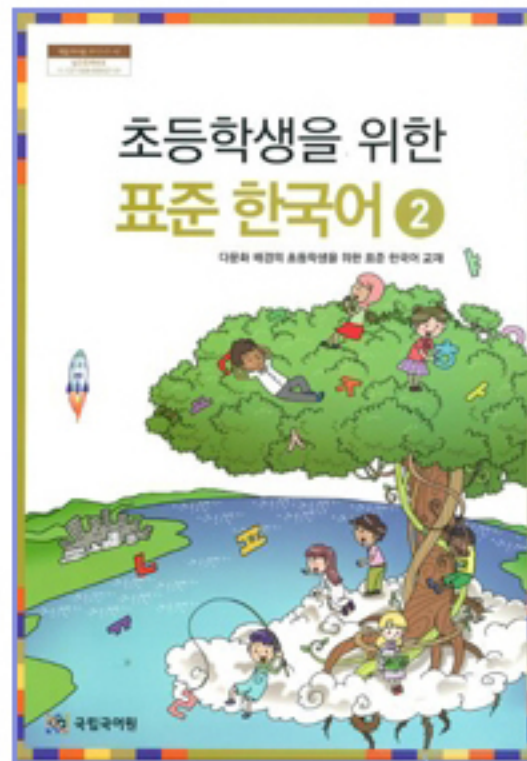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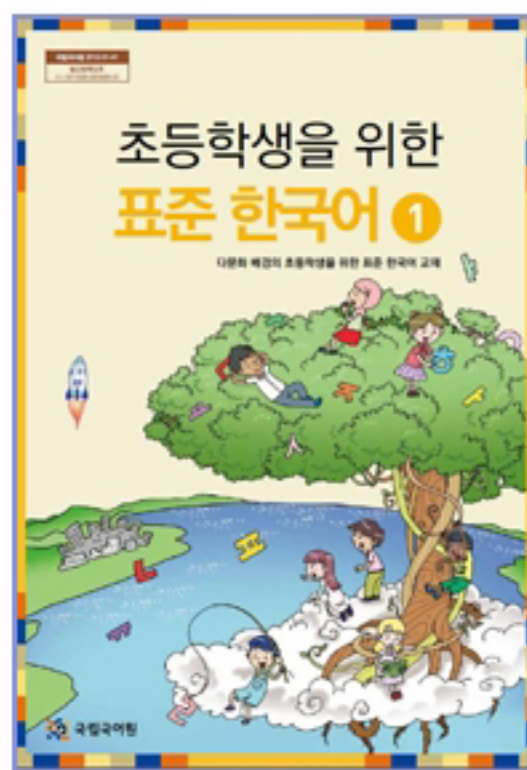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발간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 급별 표준 한국어 교재 3종을 발간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표준 교재가 완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위한 첫 한국어 교재로서 각급 학교의 특별 학급, 예비 학교, 대안 학교 등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대상별 맞춤형 교재를 두루 갖추게 되었다.

국립국어원 개발 다문화 가정 구성원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

대상	교재명	연도	형태	내용
다문화 가정 유아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2009~2011	진단 도구 학습지 동화책 교구 교사용 지침서 부모용 지도서	- 연령별만 3세~8세, 수준별 1수준~6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재로 활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보급하여 활용
다문화 배경 학생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1~2	2012	교재	- 학교 급별 수준별 한국어 교재 - 2013년부터 다문화 특별 학급, 예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에서 표준 교재로 사용 예정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2008~2012	교재 교사용 지침서	- 수준별 1수준~6수준 한국어 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중국어 편, 베트남어 편	2008~2009	교재	-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공부하는 초급 한국어 교재
외국인 노동자	아자아자 한국어 1~2	2009~2012	교재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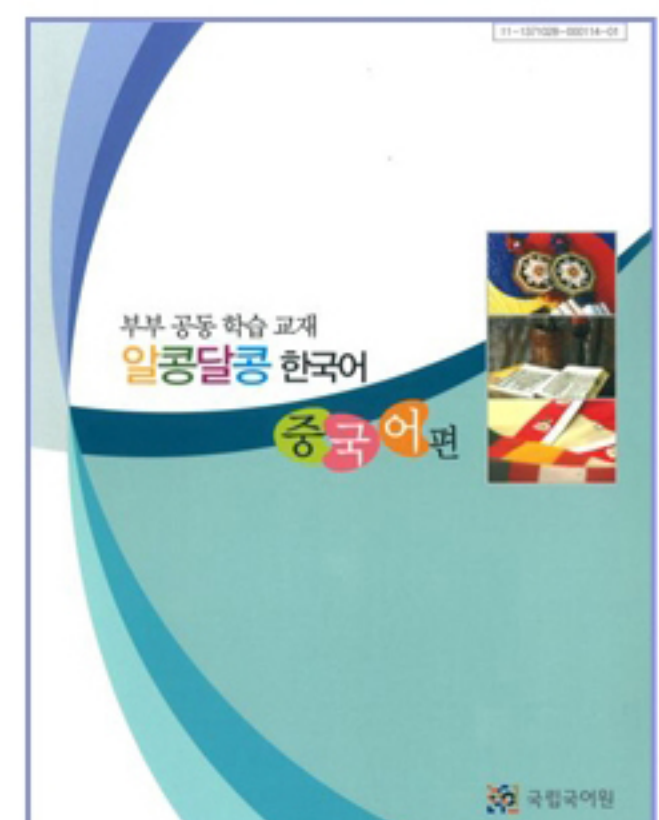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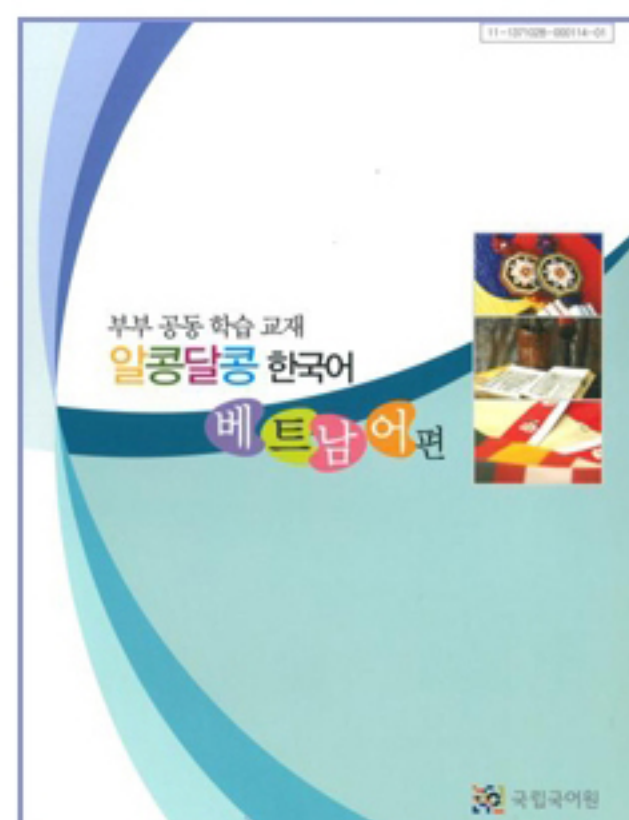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 선도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자신의 태어난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교육 관련 연구 수행, 교육 자료 개발 및 한국어 교원 연수와 자격 관리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1,2' 표지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1~2수준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베트남어 편, 중국어 편' 표지

국립국어원-국어정책과 국어 정책 추진 협의회 개최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는 2013년 2월 13일 '국어 정책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산실인 두 기관이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국어 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논의하고 올해의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두 기관은 한국어를 둘러싼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국어 정책 개발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특히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국내 거주 외국인, 재외 교포 등과 같은 언어 문화적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언어 정책 개발을 위해 실태 파악 및 제도 수립의 측면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나날이 혼탁해지고 있는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언어 개선과 국어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 날을 기념하여 한글 주간(4.4~10.10)을 운영하고 이 시기에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 개최에 앞서 '국어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최경봉원광대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경봉 교수는 새 시대의 국어 정책은 민주적인 합의와 민주적인 통제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의 수준이 향상되고 주체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국어원과 육군교육사령부 업무 협약

군사 교범 정비와 장병의 국어 능력 향상 기대

국립국어원과 육군교육사령부는 2월 1일 교육사령부 3층 회의실에서 육군교육사령부의 각종 군사 교범과 교리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사령부 간부들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어원과 육군교육사령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육군교육사령부에서 편찬하는 각종 교범과 교리, 군사 학술지 등에 대한 어문 규범 적합성 감수 등 군사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힘을 기울이고, 교육사령부 직원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고 바른 국어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에는 육군군수사령부에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을 실시하여 군 장병의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지난해에는 합동군사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한 매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장병들에게 100여 차례 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 장병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어려운 국방 전문 용어, 함께 다듬어 나간다

국립국어원, 국방기술품질원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1월 29일 국방기술품질원 본원 A회의실에서 국방 분야 전문 용어의 구축과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상호 언어 정보 자료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 체결로 국립국어원은 국방 분야 전문 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분야의 전문 용어를 국어사전에 반영하여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국어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의 내용을 검토·윤문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등재함으로써 쉽고 정확한 국방 분야 용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2.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전문 용어 구축 시스템 전문가 권한을 받아 국방 분야 전문 용어 구축 및 표준화 작업에 활용하고 상호 호환성을 갖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용어표준화협의회'를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와 연계하여 유관 기관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약정으로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문 용어 자원을 구축하고 다듬어 나가는 데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언어생활이 더욱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겨진 미련은 있지만 담겨진 장미는 없다

좋은 노래이지만 찬찬히 들으면 규범에 어긋난 노랫말이 담긴 노래가 무척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런 걸 일일이 따지지 않을 뿐입니다. 틀린 노랫말과 함께 '이중 피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겨진 미련도 없지만 모두 네가 가져 버려! <김현정 노래, 그녀와의 이별>

그대의 두 손에 *담겨진 빨간 장미가 함께 웃네요, <신인수 노래, 장미의 미소>

'남겨진'과 '*담겨진'. '남겨진'은 맞지만 '*담겨진'은 틀렸습니다. 정답 풀이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먼저 이 두 낱말의 옳고 그름을 가른 '이중 피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까요?

김 교수의 눈에 강의실로 들어서는 노인이 보였다.

나는 웬지 그 휘파람 소리가 무척 야비하게 느껴졌다.

주어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작용하는 경우를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서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경우를 '피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피동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동의 접미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다, 잡히다, 팔리다, 쫓기다' 등에 쓰인 '-이-, -히-, -리-, -기-' 따위가 바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어지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다, 이루다, 늦추다, 느끼다' 등과 비교하면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늦추어지다, 느껴지다' 등에 피동의 뜻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데 섞으면 안 됩니다. 이미 피동의 뜻이 담긴 '보이다'에 또다시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를 붙여서 '*보여지다'와 같이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부르다'의 피동사는 '불리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를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지다'를 덧붙여 '*불려지다'로 쓰는 것도 옳바르지 않습니다. '신이라 불린 사나이'로 쓰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피동사에 쓸데없이 피동의 뜻을 더하는 경우를 가리켜 흔히 '이중 피동'이라고 하는데, 둘러보면 이렇게 잘못 쓰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뉘어지다, *놓여지다, *담겨지다, *덮여지다, *바뀌어지다, *부딪혀지다, *쌓여지다, *쓰여지다, *읽혀지다, *잊혀지다, *적혀지다

이걸 제대로 고쳐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뉘다/나누어지다, 놓이다/놓아지다, 담기다, 덮이다/덮어지다, 바뀌다/바꾸어지다, 부딪히다, 쌓이다/쌓아지다, 쓰이다/써지다, 읽히다/읽어지다, 잊히다/잊어지다, 적히다/적어지다

한 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위의 문장은 가수 이용의 노래 '*잊혀진 계절'의 한 구절입니다. 워낙 널리 알려진 유행가이다 보니 '*잊혀지다'가 맞는 말인가 보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혀야 하는 건가요, 잊힌 계절'과 같이 써야 좋습니다. 가수 우순실이 1988년에 발표한 노래의 가사에는 반갑게도 '잊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 노래의 제목은 '*잊혀지지 않아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의식적으로 바르게 쓰려 했다가보다는 단지 노래의 운율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래로도 유명한, 정지용의 시 '향수'의 한 구절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와 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과 '담겨진'의 정답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다시피 '담겨지다'는 '담다'의 피동사 '담기다'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꼴이므로 잘못입니다. 하지만 '남기다'는 '남다'의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입니다.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지다'가 붙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에 보인 예들은 사동사에 '-어지다'가 붙어 쓰인 것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없는 표현들입니다.

굴려지다, 남겨지다, 덮혀지다, 띄워지다, 붙여지다, 세워지다, 숨겨지다, 썩혀지다, 알려지다, 태워지다, 키워지다, 펼쳐지다

글_ 노시훈

—
노시훈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박물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전시 문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을 견학하다 자연스럽게 답사의 매력에 빠져 현재는 테마여행 블로그와 카페 '산 너머 살구'를 운영하며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양복집 주인은 양복장이

양복집 단골손님은 양복쟁이 ! ?

미장이/*미쟁이, 개구쟁이/*개구장이. '-쟁이'와 '-장이'가 붙는 말, 언제 어떻게 쓰는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쟁이'와 '-장이'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갓장이 현 갓 쓰고 무당 날 빌려 굿하고

구두장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

첫째는 '제가 제 것을 만들어 가지지 못하고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 쓰는 속담이고, 둘째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지혜보다 나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속담인데요. 여기에 쓰인 '갓장이, 구두장이'를 흔히 '*갓쟁이, *구두쟁이'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이'와 '-쟁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장이'는 '어떤 기술, 특히 수공업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접미사입니다. '간판장이, 갓장이, 구두장이, 땀장이, 양복장이, 용기장이, 유기장이, 칠장이' 등은 모두 수공업적인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므로 '~장이'로 써야 하는 것이지요.

추석이 가까울 무렵이면 주렁주렁 매달린 콩에 알이 통통하게 땀다. **개구쟁이**들은 그것을 뿌리째 뽑아 와 사람의 왕래가 없는 언덕의 큰 바위 뒤에서 그슬어 먹는 것이다. <한무숙, 만남>

난쟁이의 키는 두 여자의 어깨 밑까지밖에 안 찼다. <조세희, 칼날>

반면에 '-쟁이'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접미사입니다. '개구쟁이, 거짓말쟁이, 겁쟁이, 고집쟁이, 난쟁이, 무식쟁이, 수다쟁이, 양복쟁이, 욕심쟁이' 등은 모두 이러저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므로 '~쟁이'로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쟁이'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쟁이'와 '그림쟁이'는 각각 '작가'와 '화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지요. '가게쟁이'와 '월급쟁이'도 각각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곧잘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장이'의 예에는 '양복장이'가 있고, '~쟁이'의 예에는 '양복쟁이'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귀에 연필을 낀 젊은 **양복장이**는 권척을 들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광수, 훈>

사무실에는 **양복쟁이** 오륙 인이 책상 앞에 둘러앉았다. <이기영, 고향>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양복쟁이'는 '양복을 즐겨 입는 사람' 또는 '양복을 입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낱말은 뜻을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점장이'와 '점쟁이' 중에서는 뭐가 맞을까요?

그는 다만 앞일을 예언할 뿐 **점쟁이**나 **관상쟁이**가 액막이를 처방하듯 그것을 피해 낼 방법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이청준, 예언자>

언뜻 보면 일종의 직업이기도 하고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도 같으니까 '*점장이'로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점쟁이'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고, 고치고, 가공하는 등의 수공업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상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도 역시 '관상쟁이'라 해야겠지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차돌박이**를 시키고 생선이 먹고 싶으면 **알배기**를 시켜라.

‘-장이/-쟁이’처럼 ‘-박이/-배기’도 뜻을 잘 살펴 구분해서 써야 하는 말입니다. ‘소의 양지머리뼈의 한복판에 붙은 기름진 고기로서 빛이 희고 단단한 것’을 가리킬 때 흔히 ‘*차돌배기’ 또는 ‘*차돌바기’라고들 하지만, 정답은 ‘차돌박이’입니다. 차돌 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 같다 해서 ‘차돌박이’라 하는 것이지요. 점이 박혀 있는 것 같다 해서 ‘점박이’라 하고, 오이에 소를 넣은 김치라 해서 ‘오이 소박이’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쓰인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접미사입니다.

그럼 ‘-배기’는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일까요? ‘한 살배기, 열 살배기’처럼 ‘그만큼의 나이를 먹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리킬 때 쓰는데 ‘*일흔 살배기, *여든 살배기’처럼은 잘 안 쓰이는 것으로 보아 주로 어린 사람에게만 쓰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배기, 알배기’처럼 ‘그것이 꼭 들어차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공짜배기, 진짜배기’처럼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물건’을 가리킬 때에도 ‘-배기’를 씁니다.

참고로 ‘-빼기’라는 접미사도 있는데요. ‘곰빼기, 밥빼기, 악착빼기, 앞독빼기, 외줄빼기, 코빼기’ 같은 말에서는 ‘-배기’가 아닌 ‘-빼기’를 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글_ 노시훈

—

노시훈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박물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전시 문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을 견학하다 자연스레 답사의 매력에 빠져 현재는 테마여행 블로그와 카페 ‘산 너머 살구’를 운영하며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삼가해'라는 말은 삼가주세요

*삼가하다와 '삼가다',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무심코 *삼가하다라고 쓰거나 *삼가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보고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간 적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가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속 직원이 아닌 분은 사용을 ***삼가해** 주세요,
공공장소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삼가합시다**,
자정 이후에는 건물 출입을 ***삼가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관공서에 가면 '*삼가해 주세요, *삼가합시다, *삼가하도록' 등과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가하다'는 틀린 말입니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또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횡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은 '삼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주세요, *삼가합시다, *삼가하도록' 등은 각각 '삼가 주세요, 삼갑시다, 삼가도록' 등으로 고쳐 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로 적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단출입이나 음주, 흡연에 앞서 정작 '삼가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표현들이라 하겠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외출을 **삼가고** 나는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렸는데……, <이동하, 장난감 도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에까지 반감을 노출시키는 반응은 **삼가는 게** 좋을 것이며……, <김주영, 마군 우화>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잘못 쓰게 된 것은 아마도 아래 예문에 나오는 부사 '삼가'에 '-하다'가 붙어서 된 말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인은 **삼가** 만나 뵈옵고 싸우지 않고 화친을 의논하려 하옵니다. <박종화, 임진왜란>

하지만 '삼가'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어이고, 여기에는 어법상 '-하다'가 붙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가하다'는 그저 없는 말인 것이 아니라 어법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10년 뒤 찾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낮에 받은 자극으로 그날 밤늦도록 **옛** 기억들을 더듬던 그는 마침내 오래 잊고 있었던 사리원을 찾아냈다.
<이문열, 영웅시대>
꼼꼼한 성격은 **예나** 지금까지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바위에는 **예부터** 괴이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예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다니신다.

이와 유사한 예로 '예부터, 예스럽다'가 있습니다. 흔히 '*옛부터, *옛스럽다' 등으로 쓰곤 하지요. 그런데 조사 '부터'나 접미사 '-스럽다' 앞에는 항상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은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말합니다. 즉, '옛'은 '옛 모습, 옛 기억' 등에서 보듯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형사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사와만 어울리는 '부터'나 '-스럽다' 앞에 관형사인 '옛'을 두는 것은 어법상 잘못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예스럽다'가 바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글_ 노시훈

—
노시훈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박물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전시 문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을 견학하다 자연스럽게 답사의 매력에 빠져 현재는 테마여행 블로그와 카페 '산 너머 살구'를 운영하며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지내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틀린 표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심코 잘못 쓰고 있는 인사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 나는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날 되세요.**

요즘엔 어떤 날이나 시간을 잘 보내길 바라는 뜻에서 '~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 되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되다'의 의미를 따져 보면 바른 말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와 같은 문장은 '너'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 문제가 없지만, '*선생님,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날 되세요.'와 같은 문장은 '선생님'이 '즐거운 설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 △가 되다'에서는 '□'가 '△'로 바뀔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위와 같이 말하기보다는 '신 나는 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라든지 '설날 즐겁게 지내세요.'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올해도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올 한 해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자.**

상대방의 건강이나 행복을 기원할 때 흔히 '*행복하세요, *건강하자'와 같은 말을 쓰곤 합니다.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행복하다,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명령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유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같이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서만 가능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곧 '*너는 지금부터 예뻐라.'라든지 '*우리 지금부터 예쁘자.'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까닭은 '예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지내자'와 같이 표현해 보세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2잔 나오셨습니다.**

요금은 모두 합쳐서 **5만 원이십니다.**

요즘 상점 종업원이나 전화 상담원 등의 말버릇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시-'의 남용입니다. '선생님은 커피를 주문하셨다'나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다'에서 보듯 '-시-'는 본래 서술어주문하다, 아름답다의 주체가 되는 대상선생님, 어머니를 높일 때 쓰는 어미입니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 '나온' 것의 주체는 '아메리카노 2잔'이고, '5만 원인' 것의 주체는 '요금'입니다. 이런 하찮은 사물마저 높이게 되면 정작 높여야 할 것과 차별이 되지 않으니 결국 높임법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잔뜩 긴장한 며느리가 "저, 아버님 머리님에 티끌님이 붙으셨어요."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티끌이 시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인데,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웃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글_ 노시훈

—
노시훈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박물관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며 전시 문안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외 박물관을 견학하다 자연스럽게 답사의 매력에 빠져 현재는 테마여행 블로그와 카페 '산 너머 살구'를 운영하며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는?

언어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가 투영된다. 그중 청소년과 젊은이의 언어는 성별,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 어디에서든 다른 세대의 언어와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유행에 민감하고 정보 통신 기술도 능숙하게 활용한다. 이러한 조건은 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더욱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조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조어에 호의적인
프랑스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의 신조어〉 기사르 피가로Le Figaro지 온라인판, 2012. 12. 28.

지난 2012년 10월 오피니언 웨이Opinion Way가 18세 이상의 프랑스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8세~24세까지의 젊은이들은 신조어의 사용과 유형에 대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거부감이 별로 없고 심지어 호의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세대 응답자 중 94%는 신조어가 프랑스어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신조어의 등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는데, 요즘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타시앙Attachiant: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는'이라는 뜻의 '아타상'attachant'과 '귀찮은, 성가신'이라는 뜻의 '시앙chiant'이 합쳐진 말로, '함께 지내기에 어렵지만 장점이 많은 사람' 또는 '매력이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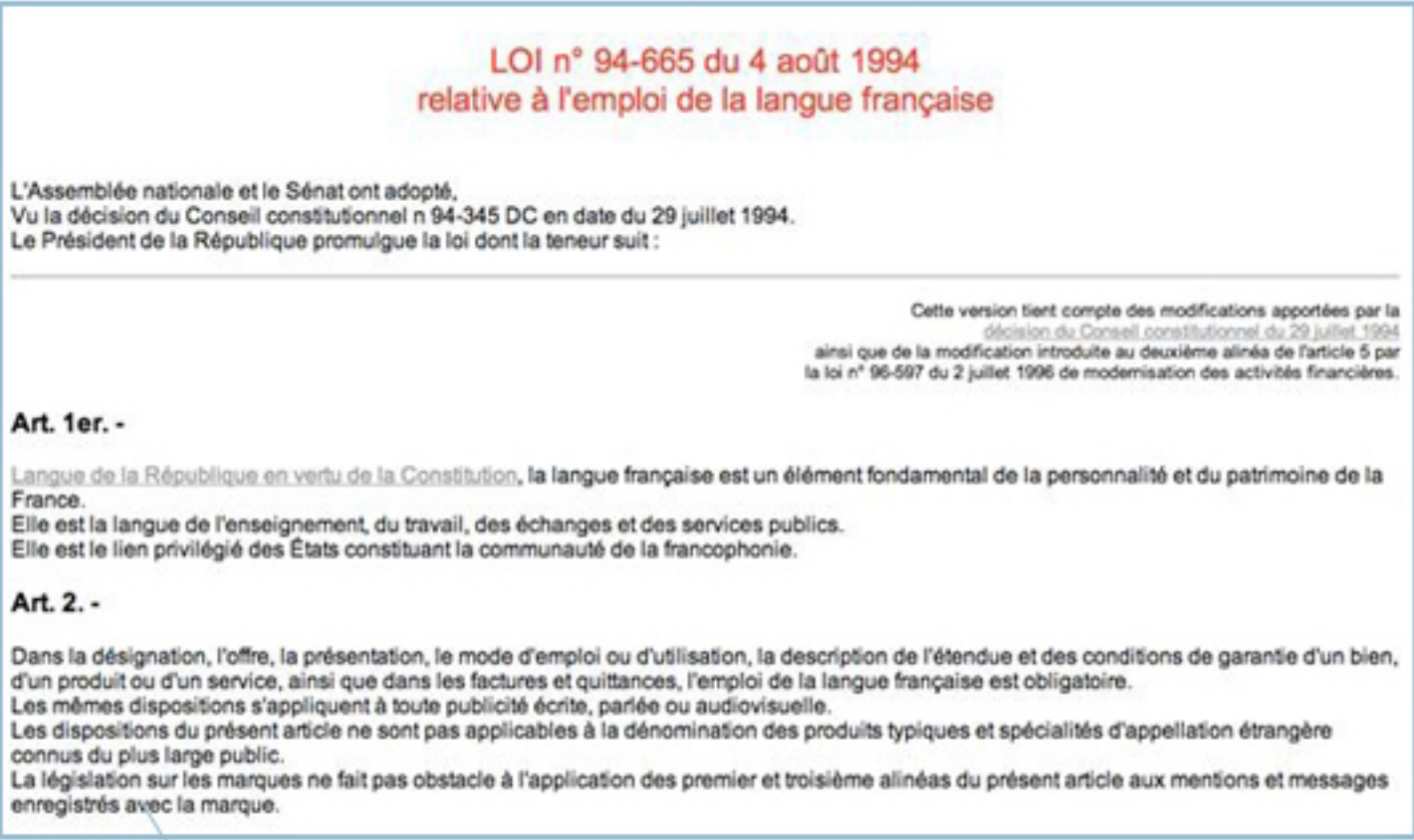
오르디노조르Ordinosaure: 프랑스어로 '컴퓨터'를 뜻하는 '오르디나퇴르Ordinateur'와 공룡 이름에 사용하는 접미사 '소르saure'가 합쳐진 말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박물관에나 갖다 줘야 할 낡은 컴퓨터'라는 뜻이다.

봉주아르Bonjour: '봉주르Bonjour' 일반적인 인사와 '봉수아르Bonsoir' 저녁때 하는 인사가 합쳐진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아침과 저녁 인사가 다른데, 이 말은 시간상 어떤 인사가 적당할지 애매한 경우에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포나르Phonard: '휴대 전화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포토포네Photophoner: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진을 찍어 부모님께 보낸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사진'이라는 의미의 '포토photo'와 '전화하다'라는 의미의 '텔레포네téléphoner'가 합쳐진 말이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

한편, 프랑스 문화 정책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이라는 점에 있다. 언어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공문서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 1539년 빌레르 코트레Villers-Cotterêts 칙령을 비롯하여 199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일명 투봉 법Loi de Toubon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 보존을 위한 노력은 제도적 틀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프랑스어 고유의 가치를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다인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이민 2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만들거나 받아들이며 사용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어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프랑스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통해 프랑스어의 위상을 지켜 왔지만 개인의 언어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주로 외국어영어 사용의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은어, 비속어 등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사용에 대하여 앞으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글_ 지영호

지영호

프랑스 아비뇽Avignon 대학교에서 문화 예술 경영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파리 제3대학교소르본 누벨 대학교에서 같은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프랑스 사회 문화 연구 기관 CERLIS 연구원이며, 파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고유어 지키기 운동

오늘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비속어와 욕설,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조어는 어느 나라에서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들은 러시아어의 위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문가들은 우선 앞으로 러시아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모국어 구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비속어의 남용은 정서와 행동 발달 과정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은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세대 간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청소년 언어를 중심으로 러시아어 순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과 진단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러시아 고유어 사용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모둠을 나누어 <비속어 바이러스>와 같은 소책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러시아어의 소중함을 느껴 보자는 뜻에서 '사전은 모두 알고 있어요'와 같은 러시아어 사전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하며, 러시아어의 순화와 발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자유 토론회도 열고 있다.



러시아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을 주제로 진행된 자유 토론회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

상트페테르부르크 Saint Petersburg에는 특별한 버스가 있다?

레닌그라드 Leningrad 대로를 다니는 152번 버스, 초록색 스카프를 두른 사람이 승객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승객들은 조용히 경청하거나 뭔가를 바빠 적고 있다. 이 버스는 지역 도서관 사서들과 대중교통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기획한 '고유어 사용하기' 활동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이른바 '문화 버스'라는 것이다. 종점에서 버스가 떠나기 20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어 단어가 적힌 종이와 카드를 들고 준비한다. 버스 안쪽에는 '희망의 나무'라 불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포스터의 나뭇가지에 긍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와 버스 승객들이 적은 소망 쪽지를 붙여 놓았다.



첫 번째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타면 자원봉사자가 승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격언이나 속담, 톨스토이 Tolstoy, 체호프 Chekhov 등과 같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서 발췌한 문구가 적혀 있다. 자원봉사자는 이것들을 가지고 퀴즈를 진행한다. 승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대부분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면, 종이에 적혀 있는 문구 중에서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쓰인 러시아어는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 활동은 처음 시작할 땐 별다른 기대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짝짝 선물을 같은 기분 좋은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날것 그대로의 러시아어의 모습이 드러나는 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운동은 이제 러시아의 고유어 쓰기 운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더 나은 러시아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줄 러시아어 지키기 운동

한 사회의 언어는 고유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 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언어는 산이나 강처럼 본래부터 그러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언어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은 러시아어 지키기 운동은 러시아의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글_ 조한울

사진 출처

www.yandex.ru

<http://gazeta.a42.ru/>

조한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에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의 로맨스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존중하고 알리기 위한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림말〉

:)	Feliz 기쁘다
:(	Triste 슬프다
:/	Confundido 혼동된다
=X	Enojo 화나다
=*	Beso 뽀뽀
o.o	Sorprendido 놀라다
>.<	Feliz 기쁘다
XD	Super mega feliz 대단히 행복하다
X(	Muy triste 매우 슬프다
n_n	Esta bien 괜찮다

신조어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개인의 언어 습관으로까지 이어져 성적이 최상위권인 중학생이 시험 답안지에 위와 같은 신조어를 별 생각 없이 썼다가 낙제할 뻔한 일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언어의 급변은 세대 간 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멕시코의 '중등교육 통합개혁 국가위원회 Consulta Naciona de Reforma Integral de Educación Secundaria: RIES'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젊은 층과 장년층 간의 언어적 세대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멕시코 교육부 누리집에 있는 독서 운동 포스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는 '배우기 위해 독서하자 Leer para aprender'라는 주제하에 하루에 20분씩 독서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멕시코 초등학생의 50%는 '초등학교 국가 학습 능력 평가 ENLACE, Evaluación Nacional del Logro Académico en Centros Escolares'에서 '우'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스페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민 전체의 독서량 증가 및 그에 따른 멕시코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독서 운동 관련 정보

담당자 | **Teresa Hernández** 전화: 50.04.85.08 ✉ 전자 우편
Patricia Martínez 전화: 10.84.72.74 ✉ 전자 우편

글_ 이상미

이상미

홍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12년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교사로 활동 중이다.



중국의 숫자 문화

종교적인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숫자와 비슷한 음을 빌려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숫자는 중국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 중국인의 숫자 문화

중국 문화에서 홀수는 양陽을 나타내고 짝수는 음陰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자리 홀수 중 가장 큰 수인 9는 양이 가장 강한 숫자가 되어 '최대' 또는 '최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예부터 중국인들은 9를 신성한 숫자로 여겼다. '구천九天'은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키며, 음력 9월 9일은 양이 성한 날이라는 뜻의 '중양절重陽節'이라 하여 명절로 삼았다. 황제는 1년에 9번 제사를 지냈다고 하며, 황궁인 자금성에는 9개의 문과 9,999개의 방이 있다고 한다. 한편,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중용中庸 사상에 따라 숫자 5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다. 5는 한 자리 수인 1부터 9사이의 가운데 있는 숫자로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황제를 달리 이르는 말로 '구오지존九五之尊'이라 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숫자는 3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의 생활에서 숫자 3의 출현 빈도는 다른 숫자들의 출현 빈도를 더한 것보다도 크다고 할 정도로 3이라는 숫자는 중국인들의 삶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횟수가 3보다 적거나 많으면 실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신하들이 황제를 알현할 때 3번 무릎 꿇고 9번 절을 하는 '삼배구고三跪九叩'의 예를 올려야 했고, 술자리에서는 먼저 술 석 잔을 마셔야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세 번 이상 중복하여 시도하지 않는 풍습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삼국지연의>의 일부 대목을 보더라도 '삼고초려', '제갈량이 주유를 세 번 화나게 하다', '조자룡이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세 번 드나들다' 등 숫자 3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숫자 3은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중국인의 사상과 행동,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현대 중국인의 숫자 문화

고대 중국인의 숫자 문화가 종교적, 민족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현대 중국인의 숫자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해음자諧音字'이다. '해음자'란 '독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가리키는데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많은 동음자同音字가 있다. 여기에 성조만 다르거나 음의 일부분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들도 모두 '해음자'로 사용될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과 달리 현대 중국인은 '오랄 구수'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9를 좋아한다. 8은 발음상 '돈을 벌다'라는 뜻의 '필 발發'과 비슷하여 역시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품 가격의 마지막 숫자가 8이 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4를 싫어하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발음이 '죽을 사死'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고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대 중국인들은 숫자 4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중일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용은 발가락 개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용은 발가락이 5개, 일본 용은 3개인 반면 중국 용은 발가락이 4개이다. 다음 그림은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구글의 로고이다. 그림에서 용의 발가락이 3개로 디자인되어 중국에서는 일본 용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의 구글 로고

문자 메시지 같은 데에도 편의상 숫자 해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서도 '2424이사이사'나 '8282빨리빨리' 같은 숫자를 골잘 사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숫자가 더욱 다양하게 쓰인다. '88'은 영어 'bye bye'를 나타내고, '7456치쓰우류'은 '氣死我了치쓰워러; 기막혀 죽겠다'를, '521우얼이'은 '我愛你 워아이니; 사랑해'를 나타낸다. 지난 2013년 1월 4일에는 '201314얼링이썬이쓰'가 중국어 발음으로 '愛你一生一歲아이니이썬이쓰; 일생 동안 사랑해'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날 혼인 신고를 하면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한꺼번에 동사무소를 찾는 바람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 자동차 번호나 전화번호에도 좋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가격이 마구 뛰는데 얼마 전에는 숫자 8이 다섯 번 들어간 번호판 'C88888'이 166만 위안한화 약 2억 8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다.



2013년 1월 4일 혼인 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사람들로 복적이는 모습

고대부터 현대까지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지라도 숫자가 중국인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그 사용 범위는 날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숫자 문화는 중국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하여 언어 연구의 흥미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출처 楚天快报

글_ 백해파

박해파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한중 언어 대조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중국에 머물면서 학위 논문을 집필 중이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한중 병렬 말뭉치 구축, 중국어 의미 주석 말뭉치 구축, 다면 자료 구축 등을 수행하였다.



우리말 예절 21. **영희 씨**, 무얼 드시겠어요?

제수씨, 무얼 드시겠어요?

틀려요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오늘 진신랑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철수 씨가 승진을 했다면 신랑 씨에게 저녁 식사를 사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신랑 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 당장 만나기로 했지요. 신랑 씨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도착한 철수 씨 부부가 반겨 주었어요.

"철수야, 축하한다." 신랑 씨는 철수 씨를 보자마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의 아내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잘 지내셨지요?" 인사를 주고받은 세 사람은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씨와 철수 씨는 된장찌개를 골랐고, 철수 씨의 아내 영희 씨는 아직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씨는 영희 씨에게 "제수씨, 무얼 드시겠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가 웃으면서 신랑 씨에게 "내 생일이 더 빠르니까 형수님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앗, 그리고 보니 실례를 범한 게 아닌지 당황한 진신랑 씨! 친구의 아내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정확한 호칭과 지칭,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친구의 아내

○○ 씨

'제수씨', '계수씨'는 적절하지 않아요!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을 쓸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 여사', '○ 여사님',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과장님', '○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존중한 것입니다. 또 친구의 아내에게 예를 갖추어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흔히 친구의 아내를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씁니다. 해당 친구에게는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으로 지칭합니다. '합부인', '자네 합부인'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나의 아내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합니다. 또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 과장님'이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와 직함을 이용한 '○ 과장님'으로 가리킵니다.

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합니다.

다음은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입니다.

호칭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지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
	아내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 과장님
	자녀에게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 이제는 잘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잘 알아 두시고 우리말 예절을 실천해 보세요. 끝으로 진신랑 씨와 철수 씨 부부를 위해 다시 한 번 말해 볼까요?

영희 씨, 무얼 드시겠어요?





우리말 예절 22. **사부님**,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부님,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
맞아요



선생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나새댁 씨는 저녁에 동태찌개를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가게에 갔더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댁 씨의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었어요. 새댁 씨는 얼른 선생님께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새댁이에요." 선생님은 잠시 놀라셨지만 이내 새댁 씨를 알아보시고는 인사를 했습니다. "새댁이 아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선생님은 옆에서 있던 남편에게 새댁 씨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댁 씨에게 "인사해. 이분은 내 남편이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뵈게 된 선생님의 남편은 새댁 씨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새댁 씨도 인사를 하려는데 선생님의 남편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말았어요.

앗, 당황한 나새댁 씨! 여자 선생님의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정확한 호칭과 지칭,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자 선생님의 남편

사부님, 선생님, ○ 과장님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가리키는 '사부님'은 '지아비 부夫'를 쓴 '사부師夫님'입니다

예전에는 여자 선생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선생님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이 필요해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입니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을 쓰고 있는데 이때 '부'의 한자는 '아비 부父'가 아니라 '지아비 부夫'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학생이 당사자와 해당 여자 선생님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학부모가 칭할 때는 '바깥어른'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정리한 것입니다.

호칭		사부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부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바깥어른

남자 선생님의 아내

사모님, 선생님, ○ 과장님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모님'입니다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말과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그 당사자와 해당 선생님에게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모님'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으로도 씁니다. 선생님은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선생님을 높이는 뜻에서도 선생님의 아내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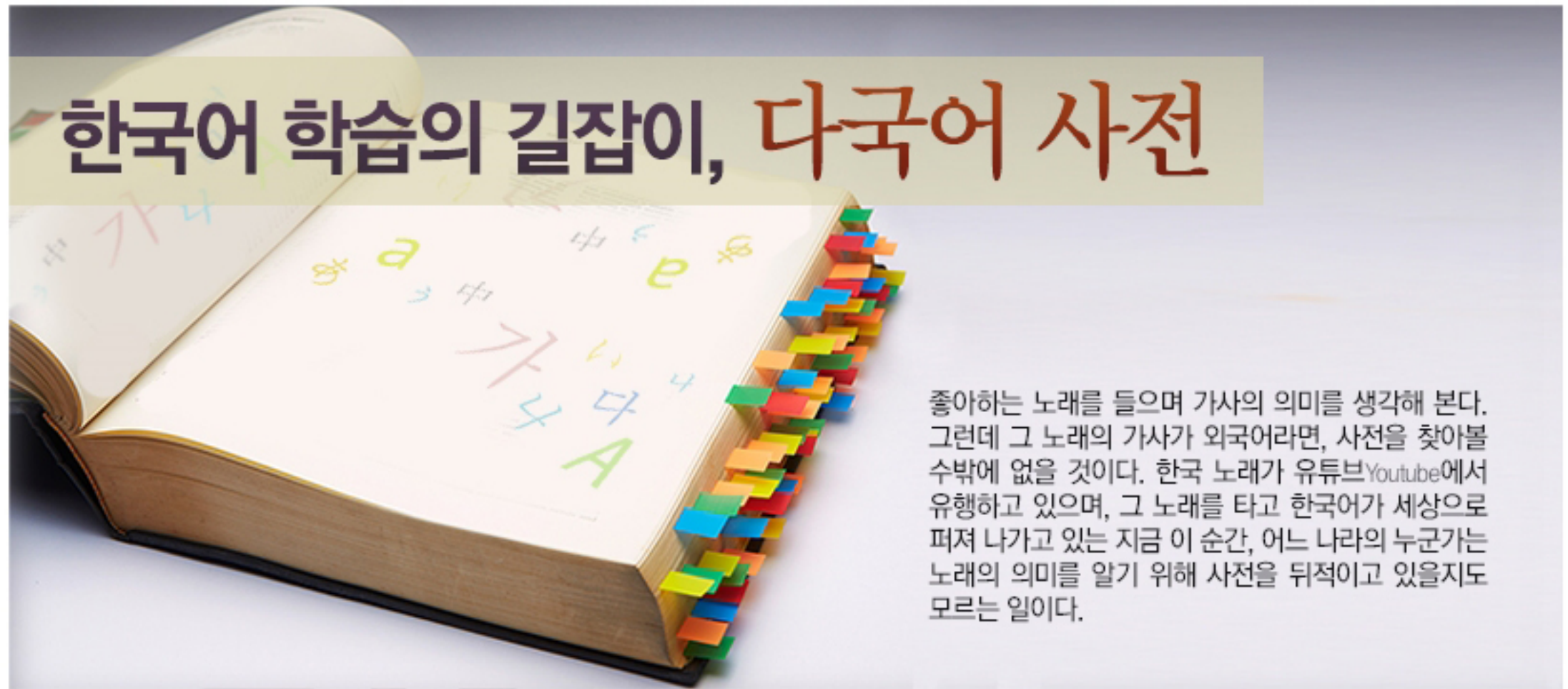
다음은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정리한 것입니다.

호칭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과 지칭, 이제는 잘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잘 알아 두시고 우리말 예절을 실천해 보세요. 끝으로 나새댁 씨와 선생님 부부를 위해 다시 한 번 말해 볼까요?

사부님,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 사전

영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사전은 단일어 사전(monolingual dictionary)이 아니라 이중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이었다고 한다. 물론 그때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사전이 아닌, 라틴어 등으로 된 책들을 읽고 번역하기 위한 사전이었지만 못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사전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사전학의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습자 사전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의 대상, 즉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인 것처럼 학습자 사전도 사전의 대상, 즉 '누가 사전을 펼쳐 보는가'가 사전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 사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사전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사전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국어 사전은 후자에 해당한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구축 한 보 진화된 한국어 사전

단계별로 계획된 국립국어원 다국어 사전 사업의 1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역의 기초, 한국어 학습의 기초가 되는 5만 어휘를 포함한 한국어 기초 사전을 집필하였고 원년의 시범 대역을 시작으로 5개 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의 1단계 대역을 2012년에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 다국어 사전은 표제어의 대역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어의 뜻풀이까지 번역하여 보여 줌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해당 표제어의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5개 언어를 선정하여 다국어 사전 2단계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원년에 채택한 5개 언어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자 수를 기준으로 민간 시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였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다국어 사전의 광범위한 활용을 고려하여 영어와 일어 등의 언어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표제어와 뜻풀이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입말이나 글말로 사용된 말뭉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용례를 제공, 번역해 주고, 학습자 사전의 필수 요소인 표제어별 중요도 표시 등도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추후에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을 통하여 구체적인 학습 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은 현재의 다국어 사전이 진화된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충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모쪼록 다국어 사전이 한국어 학습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최근 발행한 자료집에서 대한민국을 '문화 발신국'이라 칭하였다. 한국 문화의 근간이자 원천이 되는 한국어가 다국어 사전을 타고 한국의 노래만큼 멀리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_ 구지민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모두의 뜻이 모이다

편찬 책임자 강현화 교수

Apa kabar?

Xin chào.

Selamat pagi

다

국

어

사

전

สวัสดีครับ

요즘 우리 주변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이 많다. 또 그들이 구성원으로 속한 가족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의 흐름에 비해 이렇다 할 교육 단체나 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민 중에는 한국 생활 10년이 넘도록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문화의 표현 수단인 언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어 사전> 편찬은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국어 사전> 편찬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만나 보았다.

언어·문화·지식의 소통에 물꼬를 트다 <다국어 사전>

“최근 국제 사회는 다언어적, 다문화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어와 문화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계 각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어 사용자의 다변화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지요. 하지만 언어 문화적 지식의 소통과 교류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고, 한국어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습 자료가 산재돼 있어 그 활용도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지식 접근을 위한 공공적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국어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국립국어원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범용 교재>, <한국어 학습용 기초 어휘 목록> 등의 한국어 교육 분야 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다국어 사전>은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편찬되는 것으로써, 대상 언어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강 교수는 강조했다.

<다국어 사전>, 쉽게 생각하면 국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제작되는 사전으로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국내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대역어 사전 제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이에 대한 강 교수의 대답은 명쾌했다.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제시하려면 기초 어휘를 모으고,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추려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야 사전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번역되었을 때 오류 없이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기초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 어휘 5만 개가 실린 <한국어 기초 사전> 편찬의 책임을 맡은 관계로 이를 5개 국어로 번역한 <다국어 사전>의 편찬에도 힘을 보태게 된 것이지요.”

이번 <다국어 사전> 편찬은 기초 사전 30여 명, 대역어 사전 30여 명 등 총 6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작업인 만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강 교수는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담당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몇 번이고 논의를 거듭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왔다고 하였다.

“<다국어 사전>은 선정된 대역 언어 분야의 어휘 대역 전문가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 언어 전문가가 1차 번역과 2차 번역을 수행합니다. 이 결과물을 다시 언어별로 전문가 감수를 거쳐 대역 작업의 질적 제고를 꾀하게 되지요.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에는 세부 의미 항목별로 대역 작업을 진행하였고 부표제어관용어, 상투 표현 등의 대역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한국어 학습 사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전으로 <다국어 사전>을 표현한 강 교수.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 교포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효용이 높은 <다국어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 사전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바로 웹web이었다.

“웹을 통하면 사전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 집니다. 검색은 물론이고, 그림 및 영상 자료를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고, 개방형 지식 대사전과의 연계는 물론, 위키피디아형 사전으로 지식 공유형 학습을 할 수 있지요. 기존의 종이 사전이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표제어 첨삭이나 편집이 언제든 가능해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점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폰트 지원 등의 제약을 해결하면 어느 나라의 누구든 잘못된 표현이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현실 어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강 교수는 웹을 통해 언어적 지식 외에 정보 지식, 문화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어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 등 주요 외국어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중 언어 사전’의 영역을 확장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자의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사전에는 없거나 부족하게 제시되어 있는 파생어, 복합어, 잘못된 표현 등의 정보를 대폭 반영함으로써 실제 언어생활에 쓰임새가 많은 사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사전은 주로 이중 언어 사전한-영사전, 영-영사전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흔히 보는 한-영 사전을 보면, 해당 단어와 번역어만 바로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오류, 또는 부족한 정보가 자주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먹다’를 번역하면 ‘eat’이지만, ‘나이를 먹다’, ‘물을 먹다’ 등과는 일치하지 않는 번역이 되겠지요. 영-영 사전은 해당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모국어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불편하지요. 이러한 이중 언어 사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반이중 언어사전’입니다. ‘반이중 언어사전’에서는 표제어의 뜻풀이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하여 궁금증을 풀어 주고, 예문이나 부가 정보는 목표 언어로 하여 쓰이는 방식이나 맥락을 짚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을 취한 사전입니다. <다국어 사전>은 바로 ‘반이중 언어사전’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국어 사전>은 최종적으로는 20개 언어를 대상으로 편찬할 예정이다. 이번에 완료한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대역 결과물은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10월 9일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어, 아랍어를 포함한 5개 언어의 대역은 제2단계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총 20개 언어의 대역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언어권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국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다국어 사전>에 반영할 언어는 여러 대상 언어들 중에서 학습자의 요구 및 언어권별 수요, 한국어 보급의 파급력 등을 조사하여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지원자 분포,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분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 분포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사전 제작이 절실한 언어부터 시작하고자 한 것이지요. 또 대역어로 선정된 5만 단어는 기존에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소개되었거나 한국어 능력 시험에 출제된 어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어휘, 전문가가 집필한 필수 기초 어휘 등에서 중복적으로 추출된 단어 약 7만 8천 개 가운데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단어들을 추렸습니다. 이중 실질 어휘는 약 4만 개 정도이고, 연관 어휘나 합성어 등을 포함하면 5만 개가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5만 개 정도면 90%가량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충분한 양인 것이지요.”

언어의 오차를 줄이고 세계인의 거리를 좁히고

몇 해에 걸쳐 <다국어 사전> 등 외국인을 위한 사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강 교수. 그가 이토록 외국인의 언어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궁금했다.

“작년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을 10명 선발했는데 국적이 모두 달랐어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뜻이지요. 중국이나 일본 유학생만 눈에 띄던 교정에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주민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성 설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며 학술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자원봉사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열정이 일차적 조건이겠지만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든 일입니다. 한국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격려해 주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언어 표현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추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사진_최민영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학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치고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어심의회 위원, 외국어교육학회 부회장, 문법교육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국어의 동사 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1998, <대조 분석론>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개론>2005, <한국어 학습자 사전>200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2007,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2007, 2009 등이 있다.

2013년 1월에 <다국어 사전>의 제1단계 사업인 5개 언어 대역 작업이 완료되었고, 곧이어 제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대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나 품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부터 각 언어 간 번역의 통일성 기준 마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난관들을 지나며 <다국어 사전>은 조금씩 치밀해지고, 단단해져 가고 있다.

단일한 문화권에서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해 온 우리에게 외국어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어는 그저 소통의 장애 요소로만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흡수하고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추어 <다국어 사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다국어 사전>이 다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어의 국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수장'은 '손바닥', '무지'는 '엄지손가락'으로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출발점

전문가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마치 그들만 쓰는 은어처럼 여겨지던 전문 용어들이 일반에서도 널리 쓰이는 시대가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의 유통량과 유통 속도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나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을 쉬운 말로 바꾸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어 표준화 사업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의학 분야에서도 '이개, 수장, 무지, 두부, 흉쇄유돌근'과 같이 설명이 없이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도처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은 대개 일본에서 번역어로 쓰던 말들을 별 생각 없이 들여온 것인데 한번 굳어지고 나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일제 시대에 강요된 일본식 용어들을 청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의학 분야의 용어 개선 노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학용어위원회를 설치해서 용어 표준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위에 열거한 말들을 '귓바퀴, 손바닥, 엄지손가락, 머리, 목빗근'과 같이 설명이 없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고쳐 쓰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반응도 좋은 편이다. 이렇게 고친 말은 '귓바퀴재건술, 엄지손가락접합술' 등과 같이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그 의의가 더욱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말로 고친 용어가 마냥 환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괴사작은창자큰창자염'이나 '거짓막잘룩창자염'과 같은 용어는 너무 길고 뜻도 잘 와닿지 않는다 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정착이 잘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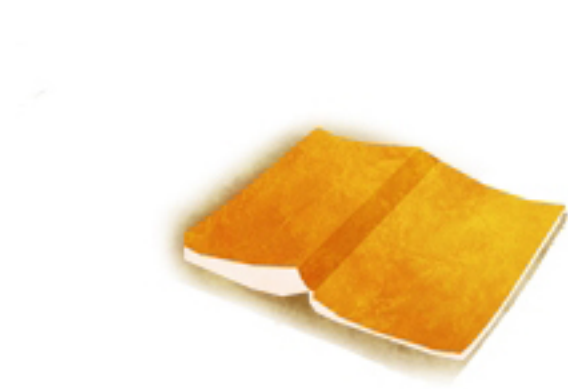
그래서 어떤 이는 '네크로타이징 엔테로콜라이트스necrotizing enterocolitis', '슈도멤브라노오스 콜라이트스pseudomembraneous colitis'라는 용어를 그냥 쓰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나 길이가 짧은 것도 아닌 이런 외국어를 그대로 쓰자는 것은 국어뿐만 아니라 의학과 의료 제도의 발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랜 경험을 가진 현장의 의사나 교수에게야 이런 용어가 익숙하고 편하겠지만 당장 의학에 입문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용어 하나 하나는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 넘어야 할 산이 되고 만다. '팜 그래스프 리플렉스palm grasp reflex', '스터노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 플랩sternocleidomastoid muscle flap'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어린 학생들을 다그치기보다는 '손바닥쥐기반사', '목빗근판'과 같은 용어로 의학이라는 학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한 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환자를 비롯한 의료 수요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상호 소통이 가능한 용어를 선택해서 널리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가 엄지손가락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하여 그에게 소통 부재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은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출발점이다. 우리말로 된 의학 용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말이 풍성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외국어와 일본식 한자어로 뒤덮인 의학이라는 학문에 우리말로써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신체의 각 부위를 가리키는 용어는 의학 분야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말이니만큼 학계 전체가, 특히 해부학계가 관심을 두고 용어 개선 작업에 나선다면 국어와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글_황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펠로우교수, 성형외과 전문의, 시인이자 수필가.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장, 국어심의위원을 지냈으며 함춘의학상과 인하대학교 연구대상을 받았다. 필수의학용어집을 냈으며, 국제 공인 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제1저자나 책임저자로 실었다.



"참 거시기하구마이~"

아이들의 언어 습관을 위한 국어 교사의 고군분투기

방학 때 남도를 다녀왔다. 문화 유적을 탐방했는데 해설사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들려주셨다. “전라도 말에 거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뭘 말인지 아시는 분?”
이때 나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내가 학교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거시기는 그 거시기가 아니었다.
“그렇게 전라도에서 거시기라 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 그런 뜻이지라. 이 말은 국어사전에 공식 단어로 등재되어 있당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명색이 국어 교사라는 사람이 표준어도 못 알아보고 거시기를 그 거시기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개학을 하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거시기의 뜻을 같이 찾아보고 거시기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존나’의 뜻을 친절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 4교시 빨리 마쳐요. 존나 배고파요.”
‘헉!’. 이런 말을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선생님 앞에서 태연하게 내뱉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타일렀으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존나’를 익히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은 터라 어른들이 싫어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 실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은 드물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말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존나’는 성교육 용어로 말하자면 ‘발기’예요. 성기가 자극을 받아 커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존나 기분 좋다’는 ‘내가 기분이 좋아 지금 나의 성기가 발기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지며 “에이 선생님~.” 하며 염치를 차리는데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이제 여러분들도 ‘존나’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 중에 ‘존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하체를 살펴볼 거예요.”
“아악, 싫어요.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실제로 수업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존나’라는 말이 들려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의 하체를 뻘뻘 훑어쳐라 쳐다보았다. 아이가 민망함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입에서 ‘존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언어는 습관이기에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밥 먹듯 사용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 말이 부끄럽고 속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눈길을 애써 피하며 “선생님!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라고들 한다.
3월이다. 학기 초에 또 나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하체를 살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싫지 않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국어 선생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참 거시기하구마이.’

글_신재영

국어 교사.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안 학교 두레자연고에서 14년째 아이들과 뒹굴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에 늘 기뻐하고 있는 교사다. 다시 태어나도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 우리말

①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 직분을 수락하고 임기 동안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 안에는 당대의 국가 현안과 해결책이 압축되어 있다. 이를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현대사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역사 속 우리말>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우리말 쓰임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번 우리 총선거의 대성공을 모든 우방들이 칭찬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 애국 남녀가 단순한 애국 성심으로 각각 직책을 다한 연고입니다. 그 결과로 국회 성립이 또한 완전무결한 민주 제도로 조직되어 2, 3정당이 그 안에 대표가 되었고 무소속과 좌익 색채로 지목받은 대의원이 또한 여럿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왕 경험으로 추측하면 이 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사상 총돌로 분쟁 분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 의견을 표시하여 순리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니 국회의원 일동과 전문위원 여러분의 애국 성심을 우리가 다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원문의 표기는 당시 표기를 따르되 띄어쓰기는 일부 수정함. 이하 같음.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1948년 5월 31일 개막된 제헌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을 기초로 같은 해 7월 17일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본인이 서명 공포한 정부 조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때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뽑았다.

선거 방식은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했는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이승만, 무소속의 김구, 안재홍 3명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국회 재적 의원 198명 중 197명이 출석해 이승만이 180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김구는 13표, 안재홍은 2표를 얻었다. 나머지 2표는 기권이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자신이 공포한 법률에 의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취임사의 많은 부분을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했다는 점에 할애하고 있다. '모든 우방이 칭찬'하는 총선거를 강조하고 '좌익 색채로 지목받은 대의원'이 포함된 공평한 정권이고 '애국'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앞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해방 직후 서로 좌우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복잡한 정치 환경이 고스란히 반영된 취임사라 할 수 있다.



요즈음 나에게 치하하러 오는 남녀 동포가 모두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각처에서 축전 오는 것을 보면 모두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본래 나의 감상으로 남에게 축감될 말을 하지 않기로 매양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석간장이 아닌 만치 나도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40년 전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요 죽었던 민족이 다시 사는 것이 오늘 이어서 표명되는 까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첫 취임사는 이후의 대통령 취임사에 비해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소회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방 후 첫 대통령이 된 감개무량함의 결과일 수도 있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정부의 소박함일 수도 있다. 취임사 여기저기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문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방식은 재임 취임사에서도 반복된다.

우리의 대표로 레이크섹세스에 가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임영신 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정 후원도 못하고 통신상으로 밀접히 후원도 못한 중에 중대한 책임을 그만치 진취시킨 것을 우리는 다 영구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 개인의 이름을 들어 감사를 표한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 등장하는 승당 임영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이며, 중앙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1931년 이승만 대통령은 측근인 이순길을 통해 임영신에게 청혼했으나 거절당한 일이 있을 정도로 둘 사이는 개인적으로도 각별했다. 이외에도 '마크 크라크 장군'과 '잼스 밴폴릴 장군'도 제2대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후의 취임사에는 내외빈을 소개하는 의례적 인사 외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볼 수 없게 된다.

제3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문체가 이전과 많이 달라진다. 대통령 개인의 소회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기보다는 정책 현안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더 충실하게 된다. 문장의 길이도 많이 짧아져서 한 문장이 10여절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느 나라이던지 우리에게 친선히 한 나라는 우리가 친선히 할 것이요 친선치 않게 우리를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는 친선히 대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40년간에 우리가 국제상 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일인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게 되었음은 즉 우리가 우리말을 할 수 있고 우리 일도 할 수 있나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대로만 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중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여겨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알려 주어서 피해에 양해를 얻어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복리만 구함이 아니요, 세계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1948년 7월 24일 전문 읽기

오늘 취임식에서 내가 다시 지게 되는 책임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1952년 8월 15일

제2대 취임사의 첫 문장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주여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는 듯하다. 전쟁 중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다시 맡게 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한 개인의 중압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대목이다.

이 취임사가 읽힐 즈음의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 국가로 대내외적인 인정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까닭에 민생, 실업, 경제 활성화 등 경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는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대로만 정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는 관점이다. 다만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들리게 하는 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료 출처_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글_ 정녕





우리말 여행 11

슬픔과 그리움이 물을 만나는 곳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라 불리는 곳. 두 물줄기는 하나의 그리움을 향하고 있다. 물은 언제나 그리움과 맞닿아 있다. 달래야 할 슬픔과 그리움을 위해 두물머리를 찾았다.

내 그리움이 향한 곳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이 만난다는 뜻의 두물머리로 유명한데 물자를 실어 나르던 나루터였던 이곳은 이제 추억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한자로는 양수리兩水里를 쓰는데, 양수리라는 지명도 여기서 나온 모양이다. 한때 번창했던 남한강의 최상류 나루터였지만 지금은 뚝배한 척만이 박제처럼 떠다니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중략

또 하나의 볼거리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한 그루처럼 모여 있는 정자 목이다. 수령은 400년이며,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마치 한 그루처럼 우산형의 수관樹冠을 형성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물가에서 가까운 나무는 강 쪽으로만 가지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리움이 있어야 목적지가 생기는 법인가 보다.

이효재 <효재,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천히> 중에서

두물머리 정자 목 같은 그리움을 가진 이가 많을 터였다. 행장을 꾸려 나선 강변도로, 살짝 올라온 안개가 강을 따라 이어진 것이 산봉우리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양수리의 본래 이름 두물머리로 이르는 길은 참 아름답다. 그동안 족히 열 번은 넘게 보았을 그곳, '이효재'가 정자 목이 그리움으로 한 곳을 향하고 있다 알려 주어서 그제야 눈치챘다. 그리고 묻는다. 내 그리움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남쪽과 북쪽의 한강이 만난 양수리가 드넓은 것은 덕터박 갤러리 옥상에서 알았다. 그날도 모늘같이 춥고 바람도 제법 있는 겨울 오후였다. 갤러리에는 관람객이 없었다. 지인과 단둘이 작품을 감상하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 쓰인 팻말을 무시하고 올라선 옥상. 그 너머로 바다처럼 한강이 일몰 속에 드러났다. '참 넓구나, 한강'. 두물머리 향수병은 아마 이때 생겼나 보다.

물과 가깝다는 안도감은 참 크다. 물과 헤어짐의 불안감도 참 크다. 그래서 큰물은 그리움의 상징으로 남게 되고 거기에는 이야기가 담기기 마련이다.



비릿한 갈망이 꿈틀거리는 두물머리

소녀는 소년이 개울독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뺨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황순원 <소나기> 중에서

당신도 ‘이 바보’라며 조약돌 던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바보’ 한마디에 나의 이성이 마비되었고, 내 갈 길을 막고 있는 소녀의 목덜미만큼 하얀 조약돌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백 번은 읽었을 것이다. 소설이 실제로보다 더 현실로 다가올 때 나는 그 둘의 무대가 어디인지 보고 싶어졌다.

나에게 소나기의 무대는 비릿한 갈망이 꿈틀거리는 두물머리 언저리이다. 강과 가까운 조그만 촌마을 말이다. 그리움, 그것은 언제나 물과 닿아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양평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순원 문학관이 생겼다.

달래야 할 그리움과 슬픔을 위해

나는 말리지 않았다.
나는 슬픔이 눈물에 잘 녹는다고 믿는다. 그래서 슬픔이 눈물에 잘 닦인다는 것을 믿는다.

이윤기 <두물머리> 중에서

이윤기의 두물머리는 좀 색다르다. 번역을 주로 했던 그가 내보인 슬픔은 일상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의 주장처럼 물을 만나 슬픔도 가신다면 두물머리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달래야 할 그리움과 슬픔을 위해 두물머리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글_정녕

사진_이금선/ 최진백

인용 문헌

<효재,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천히>, 이효재 저, 시드페이퍼, 2012

<소나기>, 황순원 저, 다림, 1999

<두물머리>, 이윤기 저, 민음사, 2000

정녕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문화 기획 일을 하고 있다.

